

음모론, 악성 바이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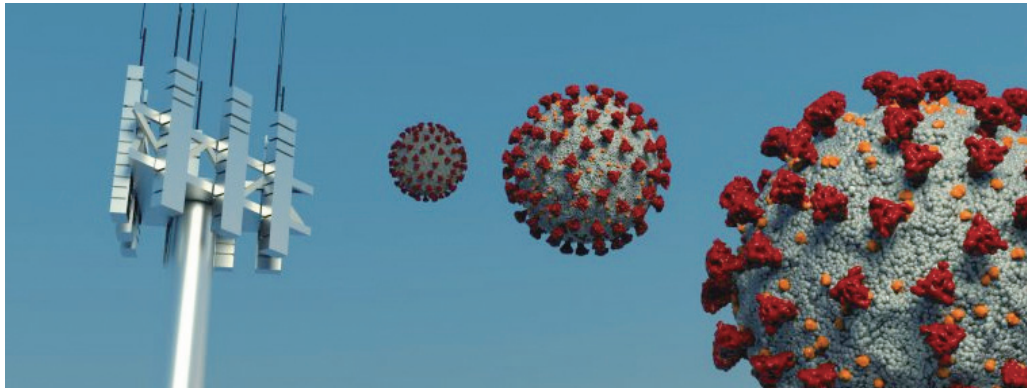
서경주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작년 12월 31일 중국 관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우한에 창궐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와 가짜 정보, 그리고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나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밝혀진 이 호흡기 질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찾아든다 해도 이 질병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친 충격과가 매우 크고 광범위해서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건강하다는 것과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WHO가 코비드19로 명명한 이 팬데믹은 보건위생과 의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하나의 신드롬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 질병에 인류가 대응하는 방식은 '진실'이라는 궁극의 문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인간 vs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우주의 중성미자(neutrino)와도 같이 지구생태계에 겨우 존재한다. 생명체로서는 최소한의 존재 방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이 미미한 존재가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고등동물인 인간을 공격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를 찾아다니며 그 안에 침입하여 유전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며 수를 늘려 나간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떤 동물보다 사납고 위험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각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내부를 구성하는 DNA와 RNA가 상황에 따라 다른 조합을 이루며 환경에 적응하고 증식하는 것을 보면 인간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하등동물은 생각이 없다고 단정하면 문어 같은 연체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젤리같은 강장과 촉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어디에도 뇌가 보이지 않는 해파리의 포식활동도 설명이 곤란하다.

한번은 집 근처 나무우듬지에 등지를 짓는 까치의 행동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는데 까치가 건축자재로 쓰이는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기 전에 그것이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지녔는지 실험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를 보고 부실한 건축자재를 써서 붕괴사고를 일으키는 일부 영리한 듯 우둔한 인간들보다 까치가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아무튼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런 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듯 바이러스도 나름대로 인간에 대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미미한 존재의 생존전략은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인간이 파악한 바이러스의 생존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영어로 축약해서 ‘SIR’로 표기하는데 ‘S’는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가 살 수 있는 ‘Susceptible’, ‘I’는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호스트인 ‘Infected’, 그리고 ‘R’은 이미 바이러스의 공격을 이겨내고 항체를 가진 ‘Recovered’이다. 바이러스는 나름대로 숙주인 인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행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방식들은 인간 존재의 복잡다단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인간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극지에서부터 열대우림까지, 지구 표면에 서식하는 거의 모든 생명체부터 오래 전에 죽어 땅속에 묻힌 것들에 이르기까지 관계

를 확장해 왔다. 다른 생명체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존재는 복잡한 관계망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들었다.

팬데믹은 인류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의 파생물이며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복잡해져서 인간 세계의 관계망을 반영한다. 격리, 락다운(lock down),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인간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요하고 주효한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의 요체는 관계의 단절이다. 육친과 격리된 채 고독한 임종을 맞이하는 비극은 관계 단절의 극단적 사례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치명적 역병에 대응하는 방식 가운데는 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며 바이러스 관점에서도 전혀 넌센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음모론도 들어 있다. 이런 음모론은 사회적 관계망에 새로운 바이러스로 등장하여 진짜 바이러스 못지않은 공격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창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자해적이다.

재앙과 음모론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를 공포감으로 압도한 크고 작은 재난에는 여지없이 음모론이 뒤따랐다. 1348~1351년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프리카에 걸쳐 흑사병이 창궐하여 당시 유럽인구의 최소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인류 역사상 첫번째 팬데믹이다. 흑사병이 가져온



공포와 불안에 인류는 가위눌렸고 견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이 뒤따랐다.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시대였다.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보호한다고 했지만 기독교도들 사이에는 이미 이교도와 이방인에 대한 혐오감이 높았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토에 격리되어 살고 있었다. 사회적 차별이었다. 이 때문에 요즘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고 청결을 강조하는 유대교 율법 덕분에 상대적으로 감염율이 낮았다. 여기서 음모론이 피어 올랐다. 유대인들이 공동우물에 독을 푼다는 소문이 돌자 급기야 유대인을 잡아 답을 정해 놓고 고문했다.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이 악의적 가짜 뉴스는 들불처럼 번져 나가며 거지나 매춘부 같은 사회 최하위 계층까지 싸잡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음모론으로 발화한 저주와 원망의 불길은 진실의 목소리를 압도했다. 아비뇽에 있던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주치의 기 드 솔리악은 유대인이 병을 퍼뜨린 게 아니라고 진실을 말했고, 교황은 칙령을 내려 주교와 신자들에게 유대인 보호를 명령했다. 하지만 죽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왕, 그리고 주교들은 오히려 음모론을 부추겼다. 재산도 차지하고 책임도 떠넘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책략이었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길드에도 편입되지 못해 기독교도들이 비윤리적 비즈니스로 여긴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어 쓴 기독교도들에게 채권자들의 죽음은 더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

이미 흑사병이 퍼진 지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말로 확진자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스트라스부르에도 소문이 퍼져 1349년 2월 14일 성 발렌타인 축일에 기독교도들은 유대인 거주 지역에 불을 질렀다. 유대인 2천여 명이 죽었다. 유대인들이 몰려 살던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마인츠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500여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와해되었다. 일례로 당시 마인츠에는 3천여 명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때 완전히 절멸되었다. 1894년 파스티르 연구소의 알렉상드르 예르생이 원인균을 밝혀낼 때까지 흑사병이 창궐할 때마다 이러한 반유대 음모론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억울한 희생자들을 낳았다.

Covid19와 Conspi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21세기 최초의 팬데믹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음모론과 와일드 클레임(wild claim)이 등장했고 코로나바이러스 못지않은 전염성을 띤 채 퍼져 나가고 있다. 무리 행동을 하며 악성 댓글을 다는 트롤 팜(troll farm)이 늘어나고 자동으로 댓글을 올리는 알고리즘인 인터넷 봇이 정교해지면서 음모론이라는 인조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명율은 높아지고 있다. 근거 없는 소문은 발이 빠르고 진실의 발걸음은 무겁고 더디다. 진실은 때로 버스가 떠난 뒤에 나타나 기다리던 이들은 망연자실한다.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시작되었다는 설도, 중국인 부부 간첩이 캐나다의 국립미생물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다는 그럴 듯한 이야기도 그저 설에 불과하지만 유사한 음모론적 가짜뉴스들은 이어진다.

작년 10월 우한에서 열린 군인 월드컵에 참가한 300명의 미군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소문이 한동안 중국 소셜미디어에 떠돌았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지안은 같은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이 소문에 부채질을 했다. 미국의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딥 스테이트(deep state)라는 비밀집단이 트럼프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큐어논(QAnon)’이란 일종의 시리즈 음모론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도 추가했다. 코비드19의 확산을 5G통신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도 있다. 5G 주파수가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에서부터 5G 전송망을 통해 바이러스 비밀이 전파되는 것을 알면서도 통신회사들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SNS를 통해 5G의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음모론의 결정판은 빌 게이츠가 거액을 출연해 질병과 기아 퇴치를 위해 공헌해 온 빌&멜린다 재단이 백신주사를 통해 인간의 몸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 넣으려고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주장이다. 5월 30일 BBC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공산당 당수는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의무적인 백신접종을 통해 은밀히 마이크로 칩을 넣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낸 로저 스톤이 ‘빌 게이츠와 다른 사람들(Bill Gates and others)’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할 때 마이크로 칩을 주사했다고 말했다. 로저 스톤은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윌러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되어 올해 2월 증인 회유와 거짓진술 죄로 40개월 징역형을 받은 바 있어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28%, 공화당원들의 44%가 로저 스톤이 말한 음모론을 믿고 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은 다양한 변종 루머를 만들어 내며 확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다수가 믿기 시작하면 집단적 확증편향으로 작용해 과학적 증거조차 부인하게 된다. 믿는 것이 진실이 된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기후변화가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북극의 빙하가 줄어드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음모론에 맞서는 방법

이른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사건처럼 오래 전 MBC 생방송 뉴스시간에 벌어진 해프닝은 하나의 소극으로 웃어넘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음모론은 그저 가볍게 웃어넘길 ‘쩨’이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모론은 대부분 악의를 가지고 탄생하고 일단 태어나면 변이



와 증식을 반복하며 퍼져 나간다. 이 병원체의 DNA는 탐욕, 차별, 증오, 피해망상 등을 나선형으로 엮고 있으며 숙주는 무지하고 감정적인 대중, 일차적 희생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음모론을 막는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막는 방법과 유사하다. 첫 번째는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버추얼 디스틴싱(virtual distancing)을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인 스테판 레반도프스키와 존 쿡은 공동저술한 <음모론 핸드북(Conspiracy Theory Handbook)>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유도해 페이스북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음모론의 공유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정보를 게시한 매체는 내가 아는 매체인가? 게시된 정보는 믿을 만한가? 게시된 글은 전문적인 뉴스매체의 문체로 작성되었는가? 게시된 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질문은 쉽고 단순하다.

두 번째는 음모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바이러스에 비유하면 저항력을 기르는 것이다. 그것은 음모론의 의도와 허구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정확한 사실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다. 음모론을 퍼뜨린 뉴스 소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음모론의 억울한 희생자들이 처한 상황을 전파하여 대중의 동정과 공감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음모론의 논리적 모순들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력감에 빠지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커다란 사건이 사소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음모론에 현혹되면 다이애나 황태자비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평범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통념과 직관에 의지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모든 결정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음모론을 무력화시키는 확실한 백신이 될 것이다. 🌐